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October 4 2024 Vol. 933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

한인교회 발달장애 콘퍼런스 나성영락교회, 25일-26일



나성영락교회에서 10월 25일(금) 오후 2시부터 26일(토) 오후 8시 30분까지 "2024 한인교회 발달장애 콘퍼런스"가 열린다. 왼쪽부터 김태형 목사, 스티븐 헌슬리, 션 리 목사. ⓒ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10월 25일(금) 오후 2시부터 26일(토) 오후 8시 30분까지 "2024 한인교회 발달장애 콘퍼런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나성영락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이 주최하는 이 콘퍼런스는 장애인 가족,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북미의 다양한 장애인 사역을 탐구하고,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김태형 목사(ANC 온누리교회)가 콘퍼런스 첫날인 25일(금) 오후 7시 45분에 기조 연설을 전하며, 스티븐 헌슬리(Stephen Doc Hunsley, SOAR Special Needs의 디렉터 겸 창립자), 제니 본 토벨(Jenni Von Tobel 윌로크릭교회), Sean Lee 목사(ANC 온누리교회 장애사역부), 이준혁 목사(나성영락교회 장애사역부), 박정민 목사(베델교회 장애부사역), 조미란 목사(은혜한인교회 장애부사역), 김정기 목사(북가주 밀알 디렉터), 추민디 목사(뉴저지초대교회 장애사역부) 등 장애인 사역자들과 특수교육 전문가 22명이 강연자로 참가한다.

공식행사는 10월 25일 오후 5시 45분에 시작되며 박은성 목사, GBC 의 이영선 사장의 인사에 이어, 제프 맥네어(Jeff McNair, 캘리포니아 뱁티스트 대학 특수교육 교수)가 "Who Should I walk with?"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공식행사 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스티븐 헌슬리가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실질적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6일(토) 일정은 오전 8시부터이며, 제니 본 토벨, 크리스틴 김 박사의 강연 후 다양한 강사들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3시 15분부터 4시 30분까지 션리 목사가 패널 토의를 이끌며, 폐회예배에서는 스티븐 헌슬리와 제니 본 토벨이 말씀을 나눈다.

참가비는 개인당 $100, 교회 및 단체 신청시 2인 참석기준 $200이며 3인부터는 인당 $50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셉 리 기자**

등록: www.k-churchconference.org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

29일 세리토스 선교교회 장로 안수 집사 은퇴식

지난 9월 29일(주일) 9월의 마지막 주일예배에서 세리토스 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는 장로 안수집사 은퇴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행렬 목사가 인도한 2부 예배에서, 25년간 장로로 교회를 섬긴 전기상 장로(1999년 임직)가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김수남 장로(2013년 임직), 정동섭 집사(2021년 임직)가 은퇴했다.

은퇴식에 이어, 방상용 목사는 이사야 55:6-13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찾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1622년에 아토차(Atocha)라는 스페인 배가 남미 콜롬비아에서 캐낸 수많은 금과 은, 보물을 싣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다가 플로리다 인근에서 태풍을 만나서 침몰했다. 4백 년 동안 보물을 실은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다. 1969년에 멜 피셔 (Mel Fisher)가 계속 보물을 찾았지만 15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1985년에 아토차 앞부분이 발견되었다. 거기서 발견된 보석이 71 파운드의 콜롬비안 에메랄드, 40톤의 금과 은, 2014년 시가로 말하면 4억 5천만 달러어치라고 한다."

방 목사는 멜 피셔가 발견한 보물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호와'라며, 여호와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첫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신다"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신 사건을 예로 들며, 끝까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누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도 하나님은 쫓아오신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셨다. 죄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뒤에 계시다. 우리를 쫓아 오셨다. 우리는 그냥 돌아서면 된다."

방 목사는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길은 '회개'라고 말했다.

"내 마음대로 살며 내 삶 위에 예수를 그냥 얹어 놓은 것은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것, 나의 의도, 나의 목적, 나의 열망, 나의 계획,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29일(주일) 주일예배에서 세리토스 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는 장로 안수집사 은퇴식을 진행했다. ⓒ세리토스선교교회

제9회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교 설교 페스티벌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주최로 제9회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교 설교 페스티벌이 10월 12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센터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이민교회 강단을 책임질 신학생들에게 설교의 장을 열어주고 설교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 "다시 시작하자"이며 남가주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인가를 취득한 13개 신학대학들 중 6개 대학이 참가한다.

1부(9:00-9:30) 예배(30분), 2부(9:30-11:45) 설교 페스티벌(2시간 15분), 3부(11:45-12:15) 휴식 및 평가 발표(30분)의 순서로 진행되며, 대회 참석자들에게 점심식사와 간단한 선물이 제공된다.

참가하는 신학대학에서 추천한 교수들과 청중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설교대상 수상자에게 $2,000, 각 평가 영역별 대상 수상자 5명에게는 각각 $1,000씩 장학금이 수여된다. 또한 설교대상을 수상한 학교에는 트로피가 증정되며 설교대상 수상자의 설교는 미주음방송국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주디 한 기자**

연락처: 사무국장 박인호 목사, holyci-tyusa@yahoo.com, 213-663-2228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51주년 맞은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붓과 같은 존재"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가 창립 5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29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고전 3:5-9)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김창섭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도구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자고 권면했다.

그는 "붓은 화가 마음대로 움직여져야지 좋은 붓이라고 할수 있다. 화가를 드러내야지 좋은 붓이다"라며 "우리는 피카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붓이다. 하나님 앞에서 붓이 자기 주장을 하면 좋은 붓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지 좋은 붓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붓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면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기 때문이고, 앞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광장에 8만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500년 전에 짓기 시작해 공사 완료까지 120년이 걸려서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어냈다"면서 "그 성당을 지을 때 일꾼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첫 번째 일꾼은 벽돌을 쌓고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일꾼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 일꾼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세 번째 일꾼과 같은 관점을 가지기 원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50년간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운전을 하고 어떤 이는 주방에서 섬기고, 어린 학생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실과 재정실, 방송실과 카페에서 수고한 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열심히 세워왔다. 앞으로도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섭 목사(세계선교교회 담임). @기독일보

설교 후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와 이혜영 사모의 찬양과 간증 시간이 있었다. 간증에서 이혜영 사모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집에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 나는 금식하고 매일 철야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2019년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이 있었는데, 몸이 이상해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배 안에 30센치나 되는 혹이 발견됐다. 의사가 말하기를 예후가 좋지 않고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면서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왔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서니까 나 자신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떳떳하게 내 앞에 올 수 있겠니?' 이 말을 듣고 내 안에 찔림이 왔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니 남편을 용서한다고 기도하고 회개를 했다. 그랬더니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샘물교회 권대근 목사 별세

나성샘물교회 목사로 대한예수교장로회미주합동총회 서부아메리카노회 노회장을 역임한 권대근 목사(1961년 10월 11일 - 2024년 9월 26일)가 9월 26일(목) 오전 5시 20분 향년 6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권 목사는 5~6년 전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한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간이식을 받고 회복해 목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몇 개월 전 급격히 악화되어 현대의학으로 더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마지막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빈대학과 미주총신대학에서 수학한 권대근 목사는 가디나 나성샘물교회를 개척하여 25년 동안 목회해 왔고 교회를 노회와 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유가족으로는 권미형 사모와 세 아들, 한 명의 손녀가 있다.



권대근 목사(나성샘물교회)가 9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63세.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10월 3일(목)부터 6일(주일)까지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복음의 전달자"(마28:16~20)라는 주제로 추계 부흥 성회를 개최한다.

1981년 포도원교회를 창립해 출석 교인 약 1만 명의 ,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 교회로 성장시킨 김문훈 목사는 CTS기독교TV와 CBS TV 에서 다양한 기독교 강연을 이끌었다.



김문훈 목사(부산 포도원교회 담임).

➔ 1면에서 기사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에 이어서

그는 여호와를 찾는 세 번째 방법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인간은 미로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그 미로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높다. 인간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사실 악하고 이기적이며 위선적이며 율법적이다. 복음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여 그냥 섬기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반대이다. 내가 섬겨서 내 노고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미로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알지 못하지만, 높이 올라간 사람이 얘기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 미로 안에 있는 거 같다. 우리는 바로 앞뒤 밖에 못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가 알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걸 다 보고 계신다. 저에게 이 진리는 큰 위로로 다가온다. 목사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 얼마 전 새벽 3시에 파이프가 터져서 집에 홍수가 났다. 지금 다 뜯고 난리가 났다. 완전히 집안이 폭탄 맞았다. 너무나 불편한 상황일서 잠도 잘 못 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화가 났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8-9)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삐지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굳게 해야 한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잘 아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길은 너무나 차이가 나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거기에 다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방 목사는 설교를 마무리 지으며, 예배 서두에서 언급했던 멜 피셔의 일화로 돌아갔다.

"멜 피셔가 보물을 발견하자, 플로리다 주에서 클레임을 했다. 법정 싸움으로 번져 7년이나 싸웠다. 결국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1992년 미국 대법원에서 멜 피셔의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6년 후에 죽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어느 것도 주님 앞으로 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는다."

1985년 석태운 목사와 54명의 성도들이예배를 드림으로 설립된 세리토스 선교교회는 2013년 2대 담임 목사로 1.5세인 방상용 목사가 취임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이승만의 날’ 기념 선교관 개관 및 사진 전시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후원 놀웍 이승만 기념 선교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후원으로 ‘대통령 이승만의 날’ 축제가 시작되고, 28일 오후 4시에 사진 전시회 및 선교관 개관식이 열렸다. ⓒ기독일보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후원으로 ‘대통령 이승만의 날’ 축제가 시작되고, 28일 오후 4시에 사진 전시회 및 선교관 개관식이 열렸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10월 1일을, 2021년 국군의 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날을 ‘대통령 이승만의 날’ 로 선포했으며, LA카운티 City of Walnut과 오렌지카운티 City of Stanton 시의회 또한 같은 날로 제정했다.

이우호 목사는 환영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엘에이 카운티 월넛시에서 이승만의 날을 선포한 에릭칭 시장과 한국에서 온 박창재 대표, 축사를 보내온 공병호 박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국 자유대한민국이 가장 처참했던 시절에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설수 있도록 이 나라를 만든 이승만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한인들에게도 이런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본다”라며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힘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용근 의원(오레곤주 상.하 5선)은 축사에서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분이다. 아울러 6.25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킨 영웅이다”라며 “한미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백년대계를 이룩했다. 또한 기독교 이념을 통해 국가 초석을 다졌고 교육을 통해 문맹을 퇴치했으며 민주자유를 통해 공산당을 물리쳤다. 그의 뜻을 잘 받들고 이어 나가야되겠다”고 했다.

또한 공병호 박사(공병호TV 대표)는 “우남 이승만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절반에서나마 전근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근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은인”이라며 “나라가 세워진지 76년째 되는 해에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축하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이 대통려의 유훈을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승만 기념 선교관은 놀웍(12801 Norwalk Blvd, Norwalk. CA 90650)에 위치해 있다. 대통령 이승만의 날을 기념해 재단은 10월 1일 기념식을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2일 기념 제 1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복음방송 공개 모금의 날

10월 4일 금 8:00 AM~ 7: 30 PM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선)의 방송선교 후원을 위한 ‘2024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 이 오는 10월 4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특별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미주복음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 연례 한 번씩 진행되는 ‘공개헌금의 날’ 이 다음 해의 사역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올해 공개헌금의 날의 목표액은 총 40만불이며, 모인 헌금은 방송 송출타워 모기지 상환과 송출타워 노후장비 교체, 종합 미디어로서의 도약을 위한 시설 및 인적 투자 강화, 방송국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부스는 GBC 애너하임 본사와 LA지사 스튜디오를 비롯,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샬롬교회, LA시온마켓, 얼바인 시온마켓, 부에나팍 H-Mart, 부에나팍 한남체인, 다이아몬드 바 한남체인, 풀러튼 아리랑마켓, 가든 그로브 아리랑마켓, 라 팔마 한남체인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공개헌금 참여방법

체크: Pay to the Order: KGBC

온라인(Paypal): http://kgbc.com/homeweb/donation

모바일 후원(Venmo): @am1190-kgbc

2024 밀알의밤 ‘위로’

‘남가주 밀알 선교단’이 주최하는 2024 밀알의 밤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위로(이사야서 40:1)를 주제로 가수 ‘하림’을 초청해 진행된다.



행사는 10/4(금) 오후 7시 30분 ANC 온누리교회, 10/5(토)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 10/6(주일) 오후 6시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되며 티켓 도네이션은 $20이며 중알일보 사이트나, 밀알의 밤 행사 당일 공연하는 교회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문의: (562)229-0001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이유는...”

애나하임에 있는 늘푸른선교교회(Mission Community Church, 담임 안창훈 목사)는 9월 29일(주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무엘하 7장 1절~17절을 본문으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안창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을 맺는 장면은 사무엘상하 두 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설교를 시작했다.

이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가 그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은 생각은, 신들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신전을 건축했던 이방 왕들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다른 이방 왕들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다. 고대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전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신전을 건축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되고, 내가 노력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게 된다.”


늘푸른선교교회(담임 안창훈 목사)는 9월 29일(주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늘푸른선교교회

그는 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비춰, 늘푸른선교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늘푸른선교교회로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초창기에 우리 예배처소가 없어서 매일 강당에 모여서 설치하고,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쳤다. 우리가 선교적 꿈을 꾸고 다음 세대를 위한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봉사했고, 어려움도 겪었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건물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거쳤다. 그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마치 우리의 작은 헌신과 감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그러면 복음의 메시지가 흐려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반응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순간 공로로 둔갑한다. 그리고 마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되는 줄 착각한다.” 주디 한 기자

웹사이트 : www.missionways.org/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뻔돌무산이 뭐예요? ○○ 해도 돌아가면 삽니다!

뻔돌무산 (부제: 밥 먹듯이 집 나갔다 돌아온 어느 탕자의 이야기)의 저자 사이먼 홍 장로



'뻔돌무산'의 저자 사이먼 홍 장로. @TV기독일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좋은 분들에게는 이 책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삐딱한 사람들은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뻔돌무산이 뭘까? 로펌을 운영 중인 징로님이 쓴 책이라고 한다. 빤돌무산의 뜻은 뭘까? 그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TV기독일보 '늘 새롭게'에서는 이 책을 쓴 사이먼 홍(홍성진) 장로를 만나보았다.

9살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브라질에서 초등, 중학,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17살 반에 뉴욕으로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는 버클리에 진학했다. 이후 조지타운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취직이 안 되어 헤매다가 대학교 기숙사 동기와 서른 할 살 때 로펌을 설립했고, 한인 소유 미주 최대 로펌을 33년째 운영 중이다.

이 인생 성공기같은 인생의 주인공 사이먼 홍 장로는 10년 전 이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그것을 출간하기 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렸다. 왜냐하면, 자신의 뻔뻔함이 자신이 인도하고 있던 성경공부 모임 멤버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염려해서다. 그럼에도 이 책을 낸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탕자가 성자가 된 이야기가 아니다. 뻔뻔함이 사사기처럼 계속되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사실 내놓기가 부끄럽고 벌거벗은 느낌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출간하게 되었다."

그는, "이 책의 제목 뻔돌무산은, '뻔뻔해도 돌아오면 무조건 산다'를 의미한다. 즉, 잘 안 믿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신앙의 갈등 속에 있는 분들, 그 갈등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이다"라고 간략히 소개했다.

"레인 메이커라는 용어가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로부터 유래된 말인데,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되었을 때, 제사를 지내든 뭐든 해서 비가 오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로펌으로 말하자면 사건을 따오는 사람이다. 조직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역할이니만큼 경력이 많은 파트너급 변호사가 맡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나는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출내기 변호사 시절부터 레인 메이커의 역할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사건을 따오곤 했기 때문이다."

로펌을 설립해, 한인 소유 미주 최대 로펌으로 성장시킨 사이먼 홍 장로는 그 비결을 어린 시절에서 찾았다.

꼰데 데 쌀제다스(Conde de Sarzedas)라는, 50층, 60층 빈민 아파트가 들어선 거리, 한국 이민자들 틈에 살면서 아홉 살 때부터 화장품, 속눈썹, 스카프, 의류, 가방 등을 잔뜩 챙겨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돌아다녔다.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제품을 설명했고 성과 없이 돌아온 적은 없었다.

어린시절 상상도 못할 고생을 했지만, 매일 아침 드렸던 가정예배와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그를 엇나가지 않도록 지키준 힘이었다고 말한다.

홍 장로의 책에 대해 유진소 목사는 "ANC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자기 삶의 간증을 쓴 책이다. 저에게는 영적인 동역자며 친구와 같은 분이다"라고 추천한 바 있다.

시무장로, 한인 소유 미주 최대 로펌 대표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알려진 그가 왜 묻혀져 있던 과거들을 끄집어 내 고백했을까?

"간첩이 자수해서 광명을 찾듯, 홀가분한 마음이 있다. 저는 거룩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 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고 그때 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살려주셨다. 오늘의 제 자신이 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이상으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됐다."

홍 장로는 자신에게 "탕자의 철학"이 있었다며, "'돌아가면 아버지는 분명히 받아주실 텐데 멀리가서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고생하지 말고 동네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부르면 돌아가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면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인내심을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시무장로로 섬기며, 선교도 열심히 하고, 큰 로펌의 대표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거의 고3 때 와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로스쿨을 나오고 대형 로펌의 오너로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고등학교도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해서 한 학기를 더 다녔고, 대학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겨우 들어가서 겨우 졸업했고 로스쿨도 너무 공부를 못해서 직업도 못 구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 뻔뻔해 보이는 그의 신앙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의 일부였다며,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자신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백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말했다.

"10년 전에 책을 썼다가 내용이 너무 모범적이지 않아서 고민했다. 젊은 공동체 지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책이 은혜가 안 될 거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의 사사기처럼 범죄하고, 탕자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었다. '나는 너무 자주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십년 교회를 다녀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결코 거룩과 성결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제가 옛날에 토요일 늦게까지 술 마시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앉아 있곤 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가도 옛 생활로 돌아가는 분들에게 나도 오늘도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잘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새벽 3시까지 골프 치고, 놀았더라도 교회에 가라는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박성호 목사('늘 새롭게'의 진행자)는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 '100 Steps forward 99 Steps backward'가 생각난다"며, "계속 쳇바퀴 도는 듯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장로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한 스텝 한 스텝씩 신앙의 성장을 이루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표현했다.

곽윤영 집사('늘 새롭게'의 진행자)는, "산꼭대기를 올라갈 때 쭉 올라가지 않는다. 나선형으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위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시 제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거 같은데 결국 정상에 조금씩 가까워져 간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그의 앞으로의 비전으로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를 꼽았다.

"이제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데 그것은 제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성숙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죽음과 생명 앞에서 뻔뻔함이 문제가 될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체면 때문에 죽음을 택할 사람이 있을까? 아니, 그 누가 주님 앞에 자신은 충성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뻔돌무산의 고백은 사실 무조건적인 은혜를 체험한 모든 크리스천의 고백이 아닐까?

주디 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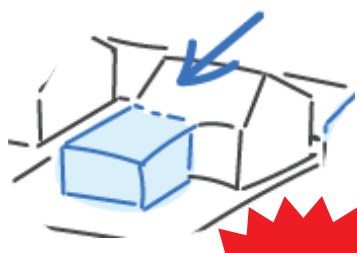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Lic#854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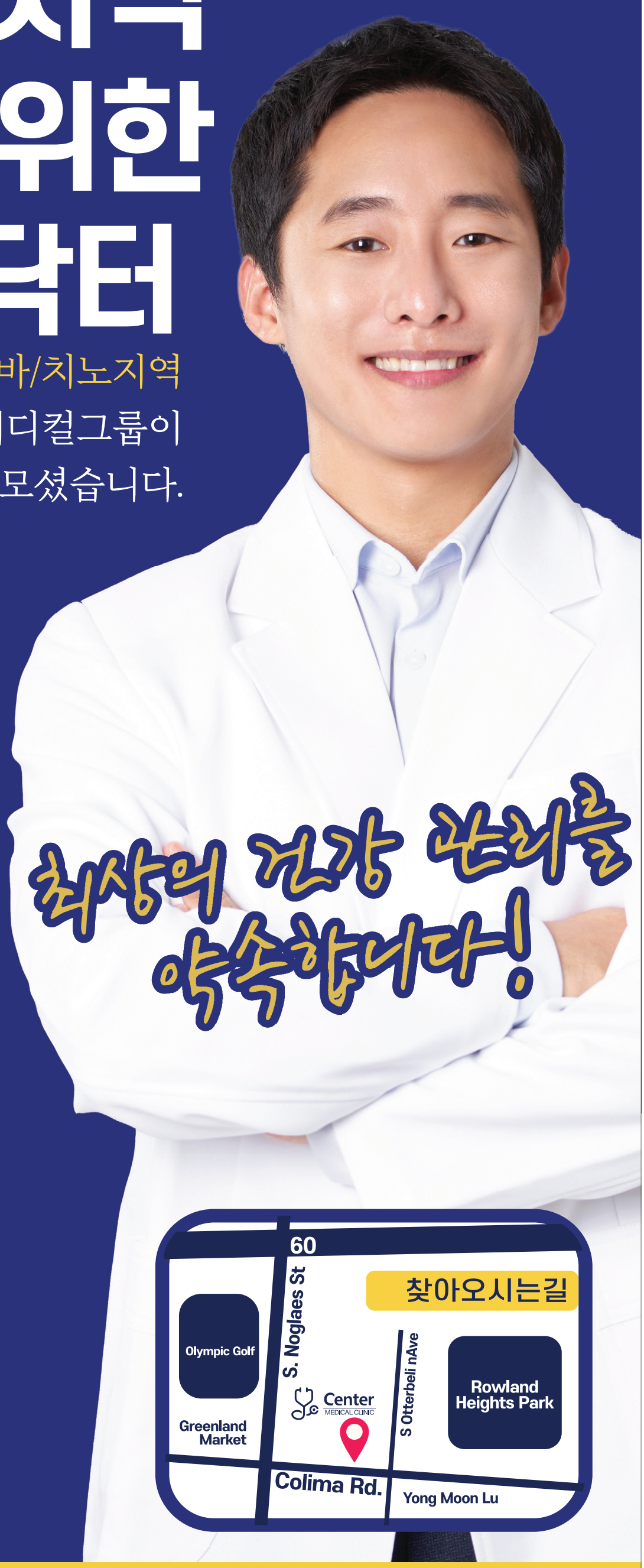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Center
MEDICAL CLINIC

LA동부지역 시니어를 위한 올바른 닥터

로렌하이츠/다이아몬드바/치노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센터메디컬그룹이
시니어전문 주치의를 모셨습니다.



센터메디컬클리닉
로렌하이츠점

송홍우 D.O.
가정의학과 전문의

스토니브룩 의과대학 레지던스
애리조나 대학교 레지던스 수료
미국 가정의학과 보드 인증 전문의
영어/한국어 이중국어

센터메디컬클리닉
특별한 이유

주치의의 진료
간호사나 보조의료인이 아닌
매진료마다 주치의가 직접 진료!

1환자 1시간
1시간동안 꼼꼼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
최상의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 경험!

시니어전문 무료병원라이드 프리미엄진료

센터메디컬클리닉 로렌하이츠점 (626) 363 - 4661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월요일 - 금요일
8:30am - 5:30pm

리셉셔니스트/LVN/RN 모집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현대 교회에 스며든 8가지 인본주의적 오류”

조셉 마테라(Joseph Mattera) 박사가 쓴 ‘현대 교회에 스며든 8가지 인본주의적 오류’라는 칼럼이 크리스천포스트를 통해 소개되었다.

마테라 박사는 뉴욕시에 있는 부활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미국 사도지도자연합(USCAL)’과 ‘그리스도언약연합(CCC)’을 이끌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인본주의적 가치가 현대 교회의 많은 가르침과 신학을 형성하고 있다”며 “인본주의란 성경의 세계관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모든 개념이다”고 전제했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당신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거나 꿈꾸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빌립보서 4장 13절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문맥을 무시한 채 인용하여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희망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없으며, 꿈을 꾼다고 해서 무언가를 실현할 수 없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에 따른 사명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로마서 12:3). 이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것이다(에베소서 4:7, 고린도전서 12:5-7). 따라서 아무리 노력하고 바라며 꿈꾸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설계에 따른 우리의 자연적, 초자연적인 능력에 따라 역량을 제한하는 사명을 주신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들은 성경이 아닌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그 근거를 둔다.

2. 해로운 사람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끊어내라

소셜 미디어에서 ‘해로운 사람들을 삶에서 배제하라’는 조언을 하는 게시물을 많이 보았다. 우리는 ‘해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들이 단순히 사귀기 힘든 사람이나 항상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게시물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자의 허물을 감싸주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로마서 15:1). 더욱이, 의견 불일치는 때때로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린도전서 11:19).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모든 것을 함께 견디는 것이라고 말한다(고린도전서 13장). 만일 해로운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죄에 빠뜨리거나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그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갈등 없이 고립된 삶을 살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갈등을 처리하면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정신을 가진 약한 마음을 키우게 한다. 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다.

3. 당신이 열정을 가진 일만 하라

열정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나타낼 수 있지만, 사명과 무관한 취미에 대한 열정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세속적 인본주의 성공 철학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이다. 우리는 열정이 없는 많은 일들도 해야 할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흥분하셨다고 생각하는가? 그분은 “자신의 행복을 좇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그 일을 하셨다(마태복음 26:36-46).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열정이 사라지면 청지기 정신이 그 자리를 채운다.

4. 개인 정체성의 강화

오늘날의 세속적 인본주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정체성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문신, 성별, 성적 생활 방식, 복장 또는 대의명분 등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는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개인주의는 교회에도 스며들어, 교인들과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주목을 끌기 위해 차별화되고, 더 우월한 모습을 보이려는 경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 정체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그분의 왕국과 영광을 위한 것과 반대된다.

5. 개인의 자율성 숭배



대회 참가자들이 로잔대회 기념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루시퍼가 하나님과 하늘의 공회보다 자신을 높이려 했던 것처럼(이사야 14:12-14),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경배를 받으려 했다(마태복음 4:10). 현대 문화에서는 인간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보다 자아실현을 더 우선시하는 기독교인과 교회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다.

6. 공동체 없는 영성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을 ‘영적’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을 중시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립된 상태로 자신을 정의한다. 이러한 영성 개념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묘사하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인본주의적 뉴에이지 종교(예: 힌두교와 불교)에 더 가깝다(고린도전서 12장).

7. 거룩이 없는 행복감

일부 사람들은 ‘마음챙김’과 같은 인본주의적 기법을 실천하며, 삶의 혼란 속에서도 환경을 조절하여 평온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행복을 거룩함(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신자들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8. 계몽주의적 지식과 진리 개념

세속적 인본주의의 ‘계몽주의’(1685-1815)가 나타난 이후, 인류는 진리를 과학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려고 노력해왔다. 기독교인이나 교회, 교파가 초자연주의를 거부한 채 기독교를 단순히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축소할 때, 그들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김유진 기자

로잔대회서 프로라이프 운동 방향성도 논의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국내외 프로라이프 단체 리더들이 만남을 갖고, 성경적 생명 존중 운동에 대한 서로의 견해와 방향성을 논의했다. 국내 프로라이프 단체로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교수,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목사, 여성소망센터’ 김정주 대표,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러브라이프’ 이예진 간사, ‘아름다운피켓’ 서윤화 목사, ‘(사)프로라이프’ 함수연 회장이 함께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가 싱가포르, 일본 등 프로라이프 리더들에게 국내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Safe Place’ 제니퍼 헝 목사(Jennifer Heng), ‘Life International’ 일본 대표 켄 코야마 목사(Ken Koyama), ‘United 4 Africa’ 설립자 오콩고 샘슨 박사(Okongo Samson)가 참여했다. 이들은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프로라이프 운동이 각국에서, 그리고 각 단체에서 어떤 노력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공유했다. 싱가포르 제니퍼 헝 목사는 두 번의 낙태 경험 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위기 임신 여성을 돕는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헝 목사는 “목회자들이 먼저 태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됐을 때, 각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프로라이프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600여의 교회가 선언문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렇게 되기까지 20여 년이 걸렸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명 교육을 펼칠 것을 제언했다.

켄 코야마 목사는 “신학교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의 죄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며 “졸업생들이 각 교회에서 사역할 때 생명 보호를 강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콩고 목사는 “어느 나라나 기독교 종파 내에서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무관심을 경험할 수 있다”며 “먼저 이 사역에 대해 사명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또한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성경의 기초적 가치임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생명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만남을 주최한 김정주 대표는 “모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경호 기자



TV CHOSUN

공식 타이틀 후원사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

창간 104주년 朝鮮日報 미주조선일보LA 5주년

미스트롯3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GALA/DINNER SHOW

10월 12일 〈토〉 6 PM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WILSHIRE GRAND BALLROOM II
900 WILSHIRE BLVD, LA, CA 90017

RESERVATION ONLY | $500부터

LIVE CONCERT

10월 13일 〈일〉 6 PM

SHRINE
SHRINE AUDITORIUM
665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50 ~ $350

NOW TICKET OPEN



chosunticket.com

$350 | 300 | 275 | 250 | 225 | 200 | 180 | 175 | 150
125 | 120 | 115 | 110 | 100 | 90 | 85 | 75 | 70 | 65 | 50

Ticket Price

특별 협찬

GSA ENT · MANHEE KOJU FOUNDATION · 서울스트리트 · OXFORD PALACE HOTEL&GALLERIA · A&E재단 · 3대 은행 · 삼호관광 SAMHO TOUR & TRAVEL INC · 한남체인 · KTP Koreatown Plaza · AIR PREMIA · ASIANA AIRLINES · KOREAN AIR · radioKOREA · 연세메디컬클리닉 · hansol INSURANCE · GC NATURAL

공연 판매처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459-6802 (월~금, 9AM~6PM)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삼호관광 LA	(213) 427-5500	2580 W. Olympic Blvd. Unit #2, LA, CA 90006
한남체인 LA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헤이리 카페	(213) 389-6138	755 S. Hobart Blvd. LA, CA 90005
천종산삼 LA 윌셔	(213) 388-1234	3906 Wilshire Blvd. LA, CA 90010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213) 387-7733	965 Normandie Ave. STE 200, LA, CA 90006
태양 여행사	(213) 252-9700	303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한우리여행사	(213) 388-4141	1001 S. Vermont Ave. LA, CA 90006
한남체인 델라모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GC Natural 부에나파크	(714) 870-7582	6081 Dale St. #B, Buena Park, CA 90621
천종산삼 부에나파크	(562) 902-1235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Jamie's Beauty 가든그로브(아리랑마켓)	(714) 356-7773	9580 Garden Grove Blvd. #303, Garden Grove, CA 92844
도르가 서점 가든그로브	(714) 636-7430	911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팔을 떼어서 보내는 것 같은데, 아프지가 않다"

베델교회에서 독립 개척 더베델교회 설립예배

2024년 9월 1일 얼바인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독립 개척한 더베델교회(The Bethel, 담임 강문구 목사)가 설립 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한요 목사는 강문구 목사를 더 베델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했다.

베델교회에서 청년부(예삶) 담당 목사로 섬겼던 강문구 목사가 더베델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된 가운데, 많은 베델 성도들이 참석해 더베델교회의 설립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충경 목사 (베델교회 부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설립예배에서 주성필 목사(베델교회 부목사)가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복음의 밝은 빛으로 시원하게 대답하는 말씀의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기도했다.

이어서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담임)가 "매주 벼락 맞는 교회"(눅 9:28-3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김 목사는 여러 감정이 밀려오는듯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도 이런 감격이 없었다. 아들 장가 보낼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다. 딸 시집 보내는 것 같다"며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인가? 한 설문조사에서 교회 성도 80%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틀리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는 교회에 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작품이다"라고 했다.



9월 1일(주일) 얼바인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독립 개척한 더베델교회(The Bethel, 담임 강문구 목사)가 설립 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한요 목사는 강문구 목사를 더 베델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했다. 왼쪽 김한요 목사, 오른쪽 강문구 목사. 더베델교회로 파송되기 이전, 강문구 목사는 베델교회 청년부 담당 예삶 목사로 섬겼다. ⓒTV기독일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의 벼락을 맞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벼락치듯 내릴 때, 그 벼락을 맞길"

"그림을 보고 화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작품은 교회이다. 예수님이 남긴 작품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변화산의 영광을 모일 때마다 체험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이다. 매주 벼락 맞는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벼락 내릴 때, 벼락을 피하지 않고 맞길 바란다."

그는 "팔을 떼어서 보내는 것 같은데, 아프지가 않다. 너무도 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매주마다 벼락처럼 내리길 바란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축복하고 싶은 교회가 더 베델교회이다"라고 축복했다.

말씀에 이어, 박정제 형제와 최혜원 자매가 봉헌 특송을 부르고, 김명수 장로의 봉헌기도 후 김한요 목사가 교회 설립 및 담임목사 파송식을 이끌었다.

이어서 영상으로 이인호 목사(더사랑의 교회)는, "교회가 분립개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표징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겸허히 순종하는 교회라는 증거이다"라고 축하했고,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는 반기독교 문화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더베델교회가 이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길 축원한다"라고 축하했다.

이길수 장로가 축사했고 강문구 목사는, "저는 교회가 좋아서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답사했다. 예배는 강문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더베델교회는 브레아 지역에 위치하며 강문구 목사와 강수연 전도사가 함께 섬기고 있다. 주디 한 기자

더베델교회 주소: 480 N State College Blvd, Brea, CA 92821
성인 예배 : 주일 오후 1시, 본당
청소년 예배 : 주일 오후 1시 30분, Youth Chapel
웹사이트 thebethelch.org/
인스타: instagram.com/thebethel_church

JCCC, 젊은이 예배로 새롭게 전환

그동안 시니어 중심 사역을 감당해 온 기쁜우리교회 (JCCC, 담임 김경진 목사)가 지난 8월부터 젊은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JCCC가 젊은이 예배를 이끌 목회자를 찾기 위해 기도하던 중 박상현 부목사가 젊은 세대 공동체 Radiant Community를 위한 전임 부교역자로 섬기게 됐다.

JCCC 젊은이 예배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오후 2시에 드린다. 예배 인원은 초기 0명에서 현재 약 30명으로 늘어났다.

시간: 매주 주일 오후 2시
장소: Edmonds Chapel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문의: 박상현 목사(pshgrace@joyfulccc.org), 323-683-0479



기쁜우리교회가 8월부터 젊은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박상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어노인팅교회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

라크레센타에 있는 어노인팅 교회(담임 신경섭 목사, 2902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는 지역사회 전도 사역의 하나로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를 오는 10월 12일(토)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영육혼의 건강을 지향하는 어노인팅 교회(담임 신경섭 목사)는 영적 건강과 함께 교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10월에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보약의 왕이라고 불리는 공진단을 직접 만들어 보는 클래스를 준비했다.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준비된 행사이기에 클래스 참여자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진단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미 1차 반죽이 끝난 공진단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며, 재료 준비를 위해 신청 수량을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문의: 신경섭 목사 224.622.9183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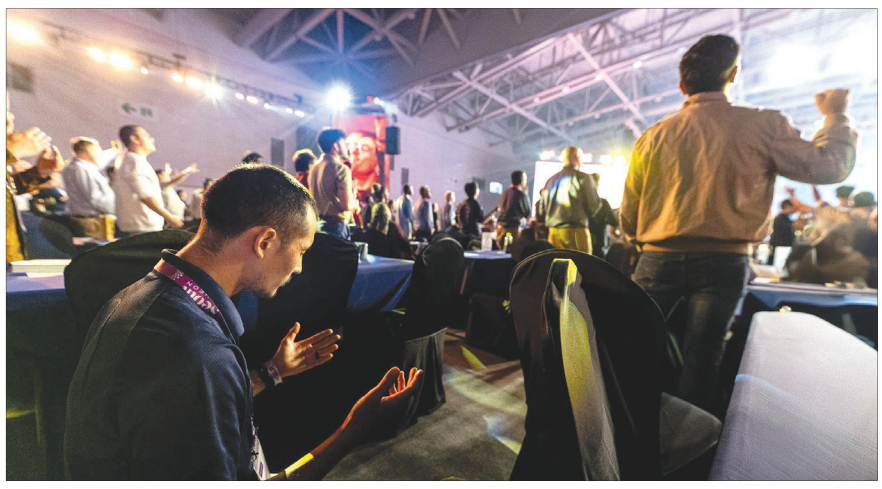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 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를 추천합니다.

J1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SCAN ME

이란 리더 "로잔대회 참석 이유만으로 5년간 옥살이"



'핍박과 선교'를 주제로 진행된 제4차 로잔대회 넷째 날,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국가들에 대한 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로잔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넷째 날, 복음주의 리더들은 북한을 포함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인도교회에 대한 박해와 선교 현황을 나눈 Babu Verghese는 "200년 역사의 인도 기독교 공동체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 있다"며 "8월 초 인도에서 가장 엄격한 개종금지법이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이(개종금지법 위반)는 보석이 불가능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재판 없이도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다"며 "개종금지법안에 따라 835건의 사건에서 1,682명이 체포됐다"고 했다.

박해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며 "폭력과 유혈 공격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도전을 받으며, 불신자들도 기독교 박해 소식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와 성경적 신앙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Verghese는 "박해는 우리에게 반대 없이는 기회도 없고, 경계 없이는 승리도 없으며, 전쟁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며 "잔인하게 박해받는 우리 민족에게 소금과 빛으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중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란 박해 상황과 그러한 박해가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전한 Farshid Fath는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대회에 참석한 이후, 귀국 65일 만에 기독교 사역을 이유로 체포돼 5년간 감옥에서 보냈다"고 했다. 그는 "제 부모님은 무슬림이었고, 어머니는 꾸란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찾으셨고, 저는 1996년 4월 테헤란에서 주님을 영접했다. 당시 17세였다"며 "2005년 영국의 엘람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이란으로 돌아와 두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서 첫 지하교회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케이프타운 대회 직후인) 2010년 12월 26일 새벽 6시, 저와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 사역자들이 '전도를 통한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라는 죄목으로 이란 정보부에 체포됐다"며 "5년 중 1년을 독방에 갇혀 지냈다"고 했다. 그는 "5년 6개월 동안 하늘의 해를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저의 빛이자 구원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강력한 기도로 5년 만인 2015년 12월에 출소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5년 동안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깊은 고통이라는 것"이라며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고통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이란에는 우리 네트워크 바로 아래에 수백 개의 지하교회가 있고, 매달 수천 권의 신약성경을 배포하고 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한 팩에 7권씩 신약성경을 담아 테이블 위에 놓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교인들은 하루에 한 권씩 성경을 가져가 함께 기도한다"며 상황을 공유하고 이란을 향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송경호 기자

가톨릭 토착 세력에 쫓겨났던 기독교인들, 5개월 만에 귀환

5개월 전 멕시코에서 강제로 쫓겨났던 15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달고주 및 지방정부 관계자의 중재로 이뤄진 결의안에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70명이 넘는 어린이와 유아를 포함한 이들의 귀국은 종교 자유의 심각한 침해와 관련된 장기간의 갈등이 해결됐음을 의미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합의는 휴주틀라 데 레예스(Huejutla de Reyes) 지방자치단체의 란초 누에보(Rancho Nuevo)와 코아밀라(Coamila) 이주민 지역사회와 마을 당국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달고주 장관인 기예르모 올리바레스 레이나와 종교사무국장인 마르가리타 카브레라 로만이 합의를 중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위기 해결에 나섰다.

지난 4월 26일, 주로 로마가톨릭 신도였던 마을 지도자들이 전기를 끊고, 교회를 파괴하고, 소수 개신교 주민들의 집에 접근을 차단하며 갈등이 확대됐다. 피해자들은 시청과 스포츠단지에 머물면서 열악한 환경을 견뎌냈다. 음식은 지역교회로부터 공급받았고, 강물에서 몸을 씻다가 질병과 감염에 노출되기도 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택에 전기와 물 공급이 복구됐으며, 개신교 공동체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지역 기금에 대한 기부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이주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종료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CSW 옹호 책임자인 애나리 스탱글(Anna Lee Stangl)은 "이달고주와 우에후틀라시 정부가 중재하고 코아밀라와 란초 누에보 당국과 이주한 소수종교인 커뮤니티가 체결한 이 합의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멕시코 법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시간 및 기타 자원 투자가 있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사회의 종교적 편협함은 관습법의 영향을 받는데, 이 법은 토착 지역사회가 때로는 국가적·국제적 인권 기준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멕시코 헌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집행이 미흡해, 란초 누에보와 코아밀라와 같은 지역에서 종교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역 당국은 개신교 소수민족에게 로마가톨릭 축제와 관행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 폭력으로 인한 기독교인 박해도 증가해, 오픈도어의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미국 오픈도어 사장 겸 CEO인 데이비드 커리(Daivd Curry)는 앞서 CP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에서는 전통주의 가톨릭 신자들이 종종 기독교인을 박해한다. 이 박해는 전 세계의 고대 민속종교를 실천하는 소규모 농촌 집단과 유사한 '씨족 폭력'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릭 워렌, 로잔대회 마지막 날 "대사명 위한 10가지" 제언



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 은퇴)가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마지막 날 강연에서 참석자들에게 대위임령 완수를 위한 10가지를 제언했다. ⓒ송경호 기자

릭 워렌 목사(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은퇴)가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마지막 날 '사명의 완수를 위해 우리가 해야 일' 10가지를 제언했다.

워렌 목사는 강연에 앞서 40세 이하의 리더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여러분을 볼 때 감명받고 자랑스럽다. 여러분은 잠재력이 있다"고 격려했으며, 이어 40세 이상의 리더들을 일어나게 한 뒤 "이분들은 선교사역을 위해 노력하셨고, 여러분(젊은 리더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안다. 모든 지도자는 서로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젊은 시절 로잔에 참석했고, 그동안의 발전을 지켜봤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 감사하다"며 "저는 대위임령 완수를 위해 제 인생을 걸었다. 여러분 모두 임무를 잘 완수하고 믿음의 여정을 잘 끝내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10가지 중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며 "교회는 처음 시작됐을 때 가장 완벽한 모습이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능력이 적든 많든 기도가 없으면 나타날 수 없다"고 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이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모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슬프게도 아직 수천 명의 종족은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돼 있지 않다"고 했다. 셋째로 "다양성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양성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두를 왜 나처럼 만들지 않으셨느냐'고 한다. 교만한 마음이다. 교회의 다양성은 강점이지 약점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선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선 다양성 속의 연합을 원하신다. 획일화된 하나의 모습이 아닌, 연합되어 가는 하나의 모습을 원하신다"고 했다.

넷째로 "모든 사람을 훈련시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경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어 꿈을 꾸게 하신다"고 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한다"며 "설교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와 같이 행하라는 대위임령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섯째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일곱째로 "가정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회는 30여 년간 건물이 없었다.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가정 안에서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여덟째로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한다"며 "믿지 않는 성도들이 왔을 때 예배를 통해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아홉째로 "함께 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은 서로 모든 것을 나눴다고 했다. 이것은 협업을 의미한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며 "초대교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눴다고 했다. 내일부터 출발이다. 실천해야 할 것들을 실천하라. 축복한다"고 말을 맺었다.

송경호 기자

로잔 위한 4천여 '중보기도자' 대회 기간에도 20차례 모여



ⓒ한국로잔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기간뿐 아니라 대회 기간인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4천여 기도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의 손을 들었다. 대회 기간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500 기도 프로젝트'는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됐다. 매일 평균 1,500명 이상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총 네 차례 두 시간씩, 5일간 총 20번의 기도회를 진행됐다. 각 요일마다 순서대로 이인호 목사, 이재훈 목사, 유기성 목사, 최병락 목사, 안광복 목사가 설교와 기도회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대회를 섬길 것을 요청했다. 제4차 로잔대회 중보기도운동본부(지도목사 이인호 목사)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천여 중보기도 동역자들을 모집해 기도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714 기도대성회를 기점으로 1년간 매일 동일한 기도문을 갖고 기도했다. 아울러 전국 12개 권역에서 분기마다 연합으로 모였다.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내며 탄식이 커져갈 때, 하나님께서 로잔대회라는 놀라운 기회를 선물로 주셨다.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했다. 그는 "손님맞이를 위한 외적 준비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겸비해 엎드려 죄를 회개해애 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미 남침례교 ERLC 국제종교자유위 재승인 '환영'



2024년 2월 6일 DBU 글로벌 참여 연구소가 후원하는 베리타스 강연 시리즈에서 브랜드 레더우드 ERLC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Ken Camp

미국 남침례회(SBC) 산하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가 전 세계 종교 자유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초당적 정부 기관의 재승인을 환영했다.

미국 뱁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미 의회는 23일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를 2년 더 재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로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활동은 2026 회계연도까지 연장된다.

ERLC 선임 정책 담당자 앨리슨 캔트렐은 BP에 "USCIRF의 주요 활동은 국제 종교의 자유 침해를 폭로하고 저지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어 선교 활동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ERLC는 투표에 앞서 218개 단체 및 개인과 함께 의회에 USCIRF 재승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제종교자유원탁회의(IRFR)가 작성한 서한에 서명했다. 원탁회의는 서한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위원회가 전 세계에서 개인의 신념, 양심 또는 종교를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보고하며,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며 "체계적인 보고서와 양심수 옹호, 박해 피해자 및 양심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자료들은 시민 사회 활동가들이 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USCIRF 재인가는 원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기본적 인권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캔트렐은 2년 연장을 옹호하는 동안, ERLC가 USCIRF의 영구적인 재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RF 위원장 스티븐 슈넥은 법안 통과에 기여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슈넥은 BP에 보낸 이메일에서 "218명이 서명한 서한을 포함해 다양한 단체 및 개인들의 시간과 노력이 의회에 전달되었으며, 이는 여러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USCIRF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확고한 권고를 통해 대통령, 국무부, 의회에 그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재승인 법안은 민주당 의원 195명과 공화당 의원 170명의 지지를 받아 초당적 합의로 작성되었다. 미국 공공서비스 방송 네트워크 C-SPAN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중 2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30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 중 17명이 투표하지 않았다.

김유진 기자

베어그릴스, 신작 서바이벌 공개 "신앙은 가장 소중한 부분"



영국의 유명 탐험가 베어 그릴스가 2024년 9월 20일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영국의 유명 탐험가이자 기독교인인 베어 그릴스(Bear Grylls)가 신앙은 "주일만이 아니라, 거친 등반, 정글 탐험, 고요한 의심의 순간에 새겨진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여정"이라고 고백했다.

올해 50세인 그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신앙과 의심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는 많은 의심과 고난을 겪었고 매일 이 모든 것이 미친 짓 같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길의 빛이 되어주시고, 쇠약한 몸에 힘을 주신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는 "많은 계곡과 정상, 정글과 사막을 지나면서 항상 그분이 함께하셨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신앙은 주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매일 그분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누군가가 질문하지 않는 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며 "신앙은 제 삶의 일부이며, 저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영국특수부대 SAS 출신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는 〈인간 대 자연〉(Man vs. Wild), 〈베어 그릴스의 러닝 와일드〉(Running Wild with Bear Grylls), 〈베어그릴스:지옥에서의 탈출〉(Bear Grylls: Escape from Hell) 등 다양한 생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는 2023년 CP와의 인터뷰에서 현대 교회의 문화와 상태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평생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인생에서 할 일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고, 종교적이고 불필요한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회도 버리는 것이다"라며 "공동체와 친구, 정직, 신앙, 사랑에 관한 교회의 요소만 남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릴스의 발언은 찬사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그는 신앙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와의 깊은 관계가 필요한 영적 생존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6부작 모험 시리즈인 〈자연 속의 선택받은 자들〉(The Chosen in the Wild)로 이어졌다. 이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의 생애와 제자를 다룬 미국의 유명 드라마 〈선택받은 자〉(The Chosen)의 출연진이 그릴스와 함께 야생에서 생존 상황을 헤쳐나가며, 예수의 제자들을 지탱한 신앙의 세계를 조명한다.

그릴스는 이달 20일 미국 올랜도 월드 센터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팬 행사에서 CP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신앙과 생존을 위한 모험을 결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관객들이 야생의 도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주님마음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100세 시대, 두 발로 행복하게 걷자!

JGP신발 오렌지카운티 브에나팍에 매장 오픈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성 건강신발 JGP가 부에나팍에 새 매장을 개점했다. @JGP USA

JGP신발을 신고 많은 분들이 허리, 무릎, 어깨, 목, 골반, 종아리, 발바닥 통증, 족저 근막염, 지간신경종 등과 걸음 걸이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통증은 사라지고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다리에 힘이 생겨 바로 걷기 시작하고, 허리와 굽은 등, 어깨와 목이 교정되어는 체험을 하고 있다.

온 몸이 건강하더라도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본인이 불편하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꼿꼿하고 팔팔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발이 중요하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당신의 몸을 망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이 활동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다. 그런데 신발이 내 발을 망치고 내 몸의 구조를 틀어지게 할 수 있다. JGP 신발은 의 균형과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척추가 바로되고 허리에 힘이 생기며 몸의 균형을 잡게 하고 걸을 때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특허를 받은 내용으로 발의 아치를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많은 사람들의 변형된 발의 구조를 정상적인 발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JGP신발은 한국, 미국, 일본의 한의사와 의사들이 신발의 효과를 인정해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검증된 건강증진 기능성 신발이다. 몸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 골반은 척추를 잡아주고, 척추는 신체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발목은 신체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발 역시 우리 몸의 중량을 받쳐주며 보행과 충격흡수, 전신의 혈액순환과 혈압조절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인체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라고 봤다. 이 정도로 중요한 발이, 잘못된 신발 착용과 바르지 않은 보행자세로 계속 걷는다면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평발, 발의 아치가 들리는 까치발, 무지외반등으로 발의 변형이 일어나고 평발은 발목 무릎 허리 순으로 통증등 무지외반증, 치매 중풍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까치발은 엉치 무릎 발목 순으로 통증 앞 뒤꿈치의 굳은살과 비뇨 생식기의 문제 등 더 큰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JGP USA의 김병식 대표는, "JGP전문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족문을 통해서 현재 내 발의 변형 상태를 확인하여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위에서 언급되었듯 지금까지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발을 망가뜨릴 수 있고 바른 신발은 변형된 발을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JGP 신발로 변형되고 틀어진 발 교정이 가능하다. 그를 통해 몸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바른 몸의 구조로 회복되어 목, 어깨, 허리, 무릎통증에서 해방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활기차게 걸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형된 발로 걷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무릎, 척추, 골반이 변형되고, 이 때문에 내장이 잘못된 물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내장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발의 상태를 확인하고 균형이 깨진 발을 교정하는 신발을 신고 걸어야 한다. 균형이 깨진 발로 걷는 것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JGP신발은 인간의 발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맨발 이상의 신발이 되도록 설계하였고, 그래서 누구나 만족하는 신발을 완성하고 공급하고 있다"며, "JGP 신발을 선택하셔서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GP 신발 매장은 올림픽 갤러리아마켓 3층과 부에나팍 비치와 커먼웰쓰에 있는 부에나팍커머스 프라자 106호에 있으며, 넓은 주차장과 쾌적한 전시매장이 마련되어 있다.

부에나팍 JGP 매장 주소 : 6281 Beach Blvd #106 Buena Park CA90621 **전화** : 714-646-1122
LA JGP 매장 : **올림픽갤러리아마켓 3층**
구입 및 무료체험 문의 : 213-330-6810.

'센터메디컬클리닉' 로렌하이츠 지점 오픈



센터메디컬 그룹이 10월 1일(화) 로렌하이츠 지점을 개원하고 개원식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1일(화) 로렌하이츠에 세번째 직영병원을 오픈한 센터 메디컬 클리닉 로렌하이츠의 개원식이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 되었다.

방문한 시니어들에게 풍성한 선물과 떡, 콘서트 티켓을 나눠준 센터메디컬그룹 관계자는 'LA동부지역에 찾기 어려웠던 한인 주치의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입장을 밝혔다.

로렌하이츠 지점 센터메디컬 클리닉(주치의 송홍우 내과전문의)은 10월 1일 개원식에 이어 2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내과전문의 송홍우 주치의가 3호점의 담당으로 진료를 하게 된다.

시니어들을 섬겨온 전문 의료 그룹 센터메디컬그룹은 빠르고 정확한 최상의 진료로 소문이 나면서 로렌하이츠 지역들의 관심이 뜨겁게 일고 있다. 우수한 진료를 위해 개인 맞춤형 진료를 표방하고 있는 센터메디컬 클리닉은 하루 환자수를 제한하여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고품질 집중 진료를 선사하고 있다.

간단한 예방접종부터 노인성 질환, 소화, 호흡기, 심혈관 질환등의 진료가 모두 가능하여 가든그로브 지역내의 시니어들에게 보다 편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당일 예약 진료도 가능하며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 이메일 및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진료 시간: 월~금 오전 8:30 ~ 오후 5: 30.
문의: (626)363 4661
주소: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 CA 91748.

단신

▶ 밀알 장학생 모집 12/6 마감

남가주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신청서는 홈페이지(www.milals-ca.org)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사랑 장학생 10/31 마감

제18기 사랑장학회 (KDSF)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화)~31일(목)이며, 사랑장학회 홈페이지(www.kdsfsarang.com)를 통해서 지원하면 된다.

▶ 2024년 밀알의밤 10/4~6

2024년 밀알의밤이 10월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위로 (이사야서 40:1)'란 주제로, 싱어송라이터 '하림'을 메인 게스트로 진행된다.

10/4(금) 오후 7:30 | ANC온누리교회
10/5(토) 오후 6:00 | 감사한인교회
10/6(주일) 오후 6:00 | 얼바인 온누리교회 티켓 구입: $ 20. 행사 당일 공연하는 교회에서 직접 구매 가능.
문의: 562-229-0001, milalsca.org

▶ 연세 의료 & 건강 박람회 10/12(토) 8:30~2:30

'2024 연세 의료 & 건강 박람회'는 10월 12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 본당 로비에서 진행된다. 무료 독감 예방 주사, 혈당 및 혈압 검사, 유방암 검사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20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당뇨, 콜레스테롤, B형 간염, 신장 기능 등 5가지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피검사가 제공된다.

▶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10/15(화) 9:30~16:00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가 미주 성시화 운동분부, 미주복음방송과 함께 10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경재 교수 칼럼

한민족, 한글, 한글성경



김 경 재 교수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신학아카데미 자문위원

10월에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3가지 근본질문

하늘이 높고 청명한 가을의 중간 10월에 중요한 두 가지 기념일이 있다. 하나는 10월 3일 개천절이요, 다른 하나는 10월 9일 한글날이다. 오늘 칼럼은 한민족과 한글과 한글성경을 마음에 두면서 그 셋의 상호 관련적 의미를 한국문화신학적 관점에서 되새김하려는 것이다.

10월을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다음 3가지이다. (i) 한민족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왔으며, 동북아시아 대륙의 끝머리에 자리잡고서 어떤 특징 때문에 중국의 대륙적 중화민족이나 러시아의 슬라브 민족에게 흡수당해 없어지지 않고 끈질긴 5천 년의 독특한 민족으로서 생명을 이어가는가? (ii) 조선왕조 500년의 기간 중 최고의 문화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5000년 역사 기간을 통틀어 보더라도 놀랍고 위대한 '한글창제'의 문화적 업적물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iii) 성경의 한글번역은 기독교 경전으로서만이 아니라, 한민족과 한글의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한민족의 뿌리와 그 성격의 양면성

우리 한민족의 뿌리와 그 연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 한민족이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생각 없이 쉽게 말하지만, 인구가 뜸했던 그 옛날에 한민족이 하늘에서 백두산 일대로 하강한 민족은 아닐 것이다. 우리 민족의 유래, 역사, 혈통, 체질, 언어, 풍속 등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학문적으로 집대성되던 중요한 결실은 고려대학교의 민족문화연구소가 간행한 6권으로 된 『한국문화사대계』 제1권인 〈민족 -국가사〉(1964년 초판)가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내용을 요약 소개는 짧은 지면에서 불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의 참고 자료로서 소개하는데 그친다. 다만 연구 결과 학계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렇다. 5000-6000년 전쯤, 지금 중동지역 곧 메소포타미아 고대 도시국가로서 유명한 수메르와 바빌론 지역에 살던 일군의 무리가, 해 뜨는 동쪽을 향하여 서서히 이동해 왔고, 몽골 초원과 만주지역 곧 현대 중국 동북삼성(東北三省)에 흩어져 살았다. 그중에서도 제3세기 경에 쓰인 중국 고서(古書) 삼국지(三國志)에 동이족(東夷族)이라고 불리운 독특한 일군의 무리들이 우리 한민족의 뿌리인 셈이다. 이들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국의 주류세력이며 한민족 혈통 속에 흐르는 대륙성 기질 곧 호탕하고 용감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민족성 기질의 뿌리가 된다.

고대 중국인이 남긴 고서(古書) 중에 위에서 언급한 『삼국지』와 다른 책으로서 『산해경(山海經)』이 있다. 그 고서 안에는 중국 본토민 밖 주위 여러 고대 민족과 국가들의 생활 습속, 종교 신화, 심성체질 등을 논하고 있는데, 그 『산해경』 안에 동이족의 기질과 풍속을 말하는 중요한 두 가지 언급 내용을 함석헌은 그의 『뜻으로 보 한국 역사』(86-90쪽)에서 중요시하여 주목하고 있다. '다투지 않은 착함'(互讓否爭)과 허리엔 검을 차고 말 타고 달리면서도 활 쏘는 '용감, 날쌤과 자존심'이라는 성품 묘사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한민족 초기 조상들의 품성 묘사에는 얼른 생각하면 모순 충돌되는 듯한 두 면이 있다. 착함과 날쌤, 어짊과 용맹, 평화 추구와 무기 사용 등 양면적 심성이다.

오늘날 2024년 현재, 남북한에 각각 국가를 형성하고 UN에 동시 가입한(1991.9.18.) 두 개의 국가가 엄존하는데,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으르렁거리면서,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전쟁 장난을 애국심 미명 아래 계속하고 있다. 호양, 착함, 양보, 어짊, 평화 추구 정신은 사라지고 거칠고 사나운 성격이 한반도 남쪽 한국이나 북쪽 조선공화국에서 횡횡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홍익인간'을 내세우면서 개천절을 수백 번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잠시 정신없이 달리는 길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10월이 된 것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거이자 뿌리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밝힌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 제4조, 제5조는 상호충돌하는 모순된 내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헌법 제3조는 영토 규정인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돌직구식으로 말하면, 제3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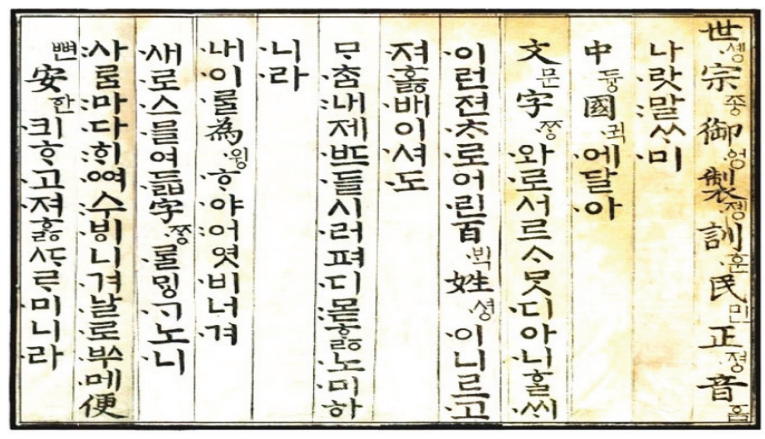
> 한글 창제의 세 가지 근본 정신
> 자주 · 민본 · 과학
> 한국의 문화적 성취의 바탕이 된 한글

한반도 북쪽에 있는 조선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영토와 부속도서가 남쪽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제4조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 · 추진한다는 것이고, 제5조는 UN 헌장을 준수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헌법과 반대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자기모순적 헌법을 가지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정치위정자들이 국민을 세뇌하고 통치하는 대로 끌려가며 살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민낯이다. 남과 북이 모두 UN에 가입되어 있고 세계 UN 회원국 200여 국가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가 엄존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도, 당사자인 우리 한민족만 그 현실적 사실을 외면하려 든다. 역사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한글창제는 5천 년 역사에서 최고의 기적이며 미래를 열고 나갈 힘

10월 9일은 한글날로 지정되어 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인 한글은 1443년(세종 25년)에 완성되었는데, 실험을 거쳐 1946년 양력 10월 초순에 반포된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경사요 세계에 내놓을 자랑거리이다. 세종대왕은 조선왕조 개국 초기 왕권세습을 둘러싼 골육상쟁의 권력 싸움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창조의 국가 비전에 뜻을 두게 되었다. 신숙주, 성삼문 등 쟁쟁한 소장학자들을 집현전에 모이게 하여 우리말 곧 백성이 날마다 사용하는 말행위(언어행위)에 걸맞는 우리글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칼럼을 쓰고 있는 필자의 솔직한 견해를 피력한다면, 조선조 500년 역사는 성리학 등 일부 훌륭한 학문적 업적이 평가되지만, 대체로 정치 · 경제 · 문화 · 사회 측면에서 실패의 역사로 본다. 그 결과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당하는 비극과 수모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대왕 시절에 창제한 한글창제의 업적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능히 500년 이씨



1459년(세조 5년)에 간행된 《훈민정음언해》. ⓒ wikipedia

조선왕조의 실패 역사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대 거사라고 본다. 암울한 정치 현실을 보면 절망감이 앞서지만, 한글 창제의 민족성과 그 저력을 생각하면 희망을 갖고 한민족 미래의 발전과 성숙을 기대하게 된다.

대도시 큰 서점들, 서울을 예로 들면 누구든지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서점이나 종각 앞 지하에 있는 영풍문고를 가서 보기 바란다. 거기 넓은 공간에 가득 찬 수만 권의 국내외 명저들이 한글로서 저작되었거나 번역되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글과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가장 잔인한 일본식민지 지배 36년 기간이 끝나고, 불과 80여 년 만에 서양유럽 문명사회가 종교개혁(1516년) 이후 800년 동안 서서히 이뤄나간 문화적 업적을 한민족은 해방 후 불과 80년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 낸 것이다.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는 K-팝 문화의 눈부신 발전도 알고 보면 모두가 한글이라는 문자의 힘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1940년 경남 안동군에서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解例本)』 안에 훈민정음 창제 정신, 철학, 목적, 음운론과 음성학 등을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훈민정음 곧 자랑스런 한글창제는 3가지 근본정신 아래서 이뤄진다. 첫째는 민족 '자주정신'이요, 둘째는 위민 '민본정신'이요, 셋째는 자연과 인간의 존재 방식을 연구하고 적응하는 '과학정신'이다.

당시 정치적 문화적 세계 최강국이었던 중국을 바로 옆에 두고 새로운 자기 민족의 문자를 창제 반포한다는 것은 요즘 생각하여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용기와 창조적 기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밝힌 대로, 말과 글의 다름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한다고 선언했다. 진정한 위민 민본정치의 결정체이다. 그리고 당시 알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든 음운론, 발성 원리, 인간 입안의 구조 등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한글 창제가 이뤄졌다는 '과학정신'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한다.

현재 24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한글의 글씨체는 상하좌우, 대각원형 등 자유자재로 표기할 수 있고, 서체도 활자체로부터 춤추는 듯한 흘림체 등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하다. 한글이 우리 민족의 힘이요 저력이며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의 뿌리다. 더욱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됨으로 물고기가 바닷물을 만난 듯 한민족에게 '신령과 진리'(pneuma and truth)의 매체(媒體)가 된 것이다. 한글은 하늘이 한민족에게 내려주신 최선의 선물이며, 문화민족으로서 최고의 문화적 창작물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분열과 증오를 멈추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지닌 최대 장단점이 무엇인지 다시 성찰해야 한다.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 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잘 계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식사는 잘 드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사를 전합니다.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상기 칼럼

사랑하는 고 권대근 목사님을 추모합니다



이 상 기 목사
평강교회 원로

지난 9월 26일 이른 아침 나성생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Y 목사님의 카톡을 통하여 고 권대근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알았습니다. 당일 오전 5시 20분에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 주간 동안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도 필자와 같이 목사님에 대한 상태나 건강 소식을 자세하게 알고 싶었지만 쉽게 전화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전화 받으시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며 유사한 질문을 자주 드리는 것이 도리어 중한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목사님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고 권대근 목사님은 가디나 지역에서 나성샘물교회를 개척하시어 지난 25년 동안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만 아니라 노회와 총회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시어 동역자들로부터 신실하시며 부지런한 목사로 인정받아 오시며 행복한 목회를 하시어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이상을 발견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이었습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셨습니다. 건강에 늘 자신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병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셨습니다. 결국, 의학의 힘으로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 장로님이 듣고서 4년 전에 이곳까지 오셔서 형 목사님을 위하여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고 목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개월 전 급격하게 몸이 약해지시어 정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로스엔젤레스의 대표적인 큰 대학병원(USC Medical School)에서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으로부터 이제는 병원이나 현대의학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와 누구나 당하는 마지막 순간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정한 시간이 되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인생은 죽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을 비유하셨습니다. 뱃속에 잉태된 아기는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은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생명줄인 탯줄을 끊고 나가야 합니다.

아기가 알지 못하는 밖의 세상은 더 넓고 밝으며 자유로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땅 위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뿐인 생명을 끊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울고 나오는 것도 생명줄인 탯줄을 끊는 고통과 좁은 문을 통하는 아픔 때문인 것처럼 사람마다 죽음의 문을 건널 때에 같은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수고와 아픔에서 영원토록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큰 병과 싸우시는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고통당하신 사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각별한 위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며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나성생물교회를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개신교 관점에서 바라본 레퀴엠에 대한 이해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2. 일반적 레퀴엠에 대한 이해

1) 근원

레퀴엠(Requiem) 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되어 고레고리안 단선율로 불리다가 15세 초 중세 후반에 다성음악 양식으로 만들어지며 서양 음악 발전에 두드러지게 공헌하게 되었다. 이 레퀴엠을 다성음악으로 만든 최초의 작곡가는 기욤 뒤파이(Guillaume Du Fay, 1397-1474)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현존하지 않고 그 뒤를 이어 만들어진 오케겜(Johannes Ockeghem, 1420-1407)의 레퀴엠이 최초의 다성음악으로 남아있다. 이어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5 or 1526 – 1594) 로부터 오늘날 엔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가들이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작곡가들은 가톨릭 종교에 심취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히 종교적 신념이 없더라도 레퀴엠을 자신의 레퍼토리로 만들게 되었다. 그 이유는 레퀴엠 가사는 그 배경이 되는 의식과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제공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레퀴엠을 작곡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실의 슬픔과 분노,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공포를 음악에 담아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2) 대표적 작품들

레퀴엠 장르의 대표적 작품들 가운데 유사한 특징을 지닌 작품들을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첫 번째는 가사의 극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대곡의 작품을 만든 것은 고전 시대 모짜르트(W.A. Mozart,1756-1792)의 레퀴엠 (Requiem in D minor, K. 626) 낭만 시대의 헥터 베를리오즈(Hector Berrios, 1803-1869) 의 레퀴엠(Grande Messe des Morts Op.5)과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의 레퀴엠(Messa da Requiem Op.48)를 들 수 있다.

(1) 모차르트(W.A. Mozart,1756-1792)의 레퀴엠 (Requiem in D minor, K. 626)

모차르트가 이 작품을 쓰게 되었던 동기는 1791년 그의 생애 마지막 해의 일이다. 그가 마지막 오페라 마적(The Magic Flute)을 끝낼 무렵인 그 해7월, 어느 낫선사람이 작곡을 의뢰(프란츠 폰 발제크 백작, Count Franz von Walsegg)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발제크 백작의 부인이 그해 2월 20세의 짧은 생을 살다 마감하게 되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발제크 백작이 대리인을 시켜 모짜르트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해 하던 모차르트는 선뜻 그 제의에 승낙하였지만 그해 오페라 마술피리가 초연된 9월 30일 이후가 되어서야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병상에 눕게되어 12월 5일 생을 마감하면서 이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기되었다. 이후 그의 제자 쥐스마이어(Franz Xaver Süssmayr)가 스승의 스케치를 이어받아 완성하였고 이듬해인 1792년 2월 의뢰자에게 전달, 발제크 백작의 아내인 안나(Anna) 가 사후 1년 뒤인 1792년 2월 초연하게 되었다. 이 곡은 모짜르트 다른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작품을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레퀴엠이 되었다.

(2) 엑토르 베를리오즈(Hector Berrios, 1803-1869) 의 레퀴엠(Grande Messe des Morts Op.5)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1830년 7월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식전에서 폭탄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로 사용하기 위해 1837년 당시 내무부 장관 이었던 아드리앙 드 가스파레(Adrien de Gaspari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가 위촉, 1837년 완성된 작품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 해 7월위령제에 연주 되지 못하고 12월 5일 담레몽 장군과 콘스탄틴 공성전에서 전사한 병사들(General Damrémont and the soldiers)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초연되었다. 이 곡은 대규모 음악 구성(200명 이상 합창, 4개의 오케스트라, - 8쌍 팀파니)으로 워낙규모가 크고 방대해서 국가적 특별한 행사에만 어울린다. 가사의 종교적 의미보다 가사의 음악적 분위기를 강조한다. 거대한 합창과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의 색채감과 웅장함이 있다.

(3)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의 레퀴엠(Messa da Requiem Op. 48)

베르디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이탈리아 민족 시인 만쪼니(Alessandro Manzoni) 가 1873 년5월 죽게 되자 그 해 6월 파리로 건너가 바로 작곡에 전념하게 되어 이듬해인 1874년 5월, 1주기 추모식에서 초연을 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한편의 오페라와 같은 대규모의 음악으로 작품 전면에 흐르는 음악적 감동은 모든 것을 수용한 거대한 종교음악의 형상을 보여준다. 특히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진노의 날"은 절규에 가까운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대화는 가위 환상적이다.(계속)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곽찬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11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i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놀웍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 (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철야기도 오후9: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언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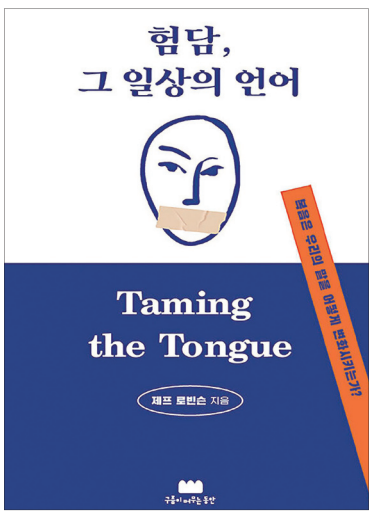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후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주중예배 목요 오후 8:00(한어) / 금요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 오후 8:00 (한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복음은 우리 혀를 은혜롭게 길들인다

몇 마디 말로 쉽게 죄 짓는 일이 반복된다면



험담, 그 일상의 언어

제프 로빈슨 | 권명지 역 | 구름이머무는동안 | 320쪽 19,000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문제를 드러내어 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고통 받게 했다면 이제는 바른 언어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잦은 말실수로 인해 아내와(남편과) 사이가점점 나빠지고 있나요?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대화가 비난으로 시작해서험담으로 끝나나요? 죄, 자기중심적인 태도, 분노, 오만함, 교만 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 말 속에 겹겹이 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이상의 말을 한다. 성경은 우리가 낸 모든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한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럴 만하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각과 말을 낸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다고 했다.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상처 입은 곳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기도 한다(잠 12:18).

말이 그만한 위력을 가진 죄와 의의 병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하루에도 수없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복음은 우리의 언어를 확실히 변화시킨다.

미국 켄터키에 있는 크라이스트 펠로십 교회 담임목사이자 복음연합(TGC) 선임 편집자인 제프 로빈슨은 그의 책 〈험담, 그 일상의 언어〉을 충격적인 자백으로 시작한다. 신실한 부목사로 동역한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말이 너무 많다'는 담대하고도 솔직한 권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성도를 돌아보기 위해,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때로 권면하고 바로잡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목사는 말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성경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한다. 더 많은 말을 내는 이상 그 말에 실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약 3:1).

그래서 우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려 말이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길들이는 것처럼, 우리 입을 길들여야 한다(약 3:3). 이 책의 원제가 그래서 『Taming the Tongue: 혀 길들이기』이다.

사람은 별의별 것을 다 길들인다. 공중에 나는 새를 길들여 활용하고, 맹수를 훈련시켜 불을 뛰어넘고 재주를 부리게 한다. 심지어 깊은 바닷속에 사는 짐승도 조련하여 물 밖으로 뛰어오르게 만든다. 그런데도 이 작은 혀라는 지체는 길들이기가 무척 어렵다. 사실 불가능하다.

혀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가장 쉽고 빠르게 반영하는 지체다. 우리는 마음에 쌓은 악을 가장 먼저 혀로 낸다. 그러므로 혀를 길들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체하는 수술은 오직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저자 로빈슨이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언어를 주신다는 것이다.

언어생활을 다룬 서적은 적지 않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폴 데이비드 트립도 언어생활에 관한 책을 썼다. 하지만 로빈슨의 책이 특별히 더 유익했던 것은 말이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인 험담, 모함, 비난, 비아냥, 자랑, 아부, 거짓말, 기만, 화내는 말, 불평, 욕설, 경솔한 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루었다는 점이다. 우리 혀로 이렇게 다양한 악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에 놀랍고 또 우리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고 있는 악이라는 사실에 또 놀랍다. 저자는 또 말의 내용뿐 아니라 방식도 문제라고 꼬집는다. 때로는 말투가 마음 속 깊은 악을 반영한다. 저자는 우리가 음성으로 내는 말뿐 아니라 글로 내는 말도 문제라고 참으로 알맞게 지적했다. 특히 SNS 등에서 활발하게 생각을 공유하는(때로는 생각 없이 공유하는)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글은 말보다 더 빠르게 멀리 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저자가 바르게 다룬 것처럼 복음이 우리 말을 은혜롭게, 또 은혜를 끼치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로빈슨은 이 책에서 십계명처럼 몇 가지 우리 말을 지혜롭게 만들고 남의 말을 지혜롭게 듣게 하며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같이 위태로운 대화를 나눌 때도 그 상황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대화의 방식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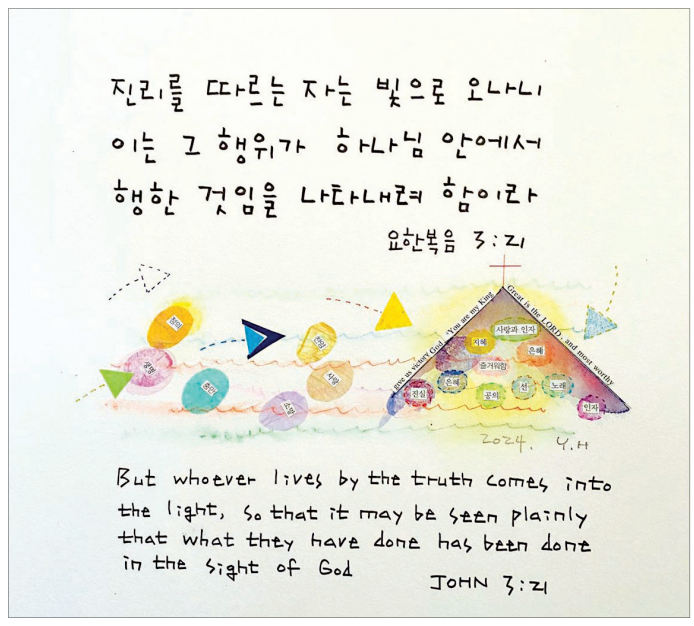

ⓒUnsplash

독자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화의 원칙을 직접 적용하여 복음이 언어를 바꾸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록에 실린 스터디가이드 질문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과 이 책으로 공부한다면, 서로 언어 생활을 점검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하루 2만 번의 기회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이에게 덕을 끼치는 선을 행할 수도 있다. 저자의 간절한 바람처럼,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복음이 가져온 은혜롭고 놀라운 변화를 매일 쏟아내는 말에서 먼저 경험하기를, 그렇게 입술의 제사를 드리며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들풀의 아름다움

베르네천 이야기: 창조 세계 돌보는 일, 헌신의 표현



성체가 된 새끼 오리들이 어미에게서 떨어져 나와 물놀이를 하고 있다. ⓒ서성록 교수

피조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기후변화로 피조물 위협하는 인류
17C 네덜란드 화가, 풍경화 창안
자연, 하나님 작품으로 봤기 때문

필자가 집 가까이에 있는 베르네천을 자주 찾는 이유는 일과 중 하나인 산책 때문이지만, 이곳에서 벌어지는 '작은 소동' 때문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야생오리가 새끼를 낳아 어미가 네 마리 새끼를 데리고 먹이 사냥에 나섰다. 갓 태어난 새끼 오리였다. 물론 왜가리나 백로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도심에서 야생오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물 표면에서 먹이를 부리로 쓸어담듯 주어먹는 동작이 진기하게 여겨졌고, 그런 새끼들을 옆에서 기다려주는 어미의 모습도 사랑스러웠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찾았을 때는 어미의 모습도, 두 마리 새끼도 보이지 않았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살펴보았으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어미는 두 마리 새끼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마음이 썩 좋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흐른 후 색다른 광경을 보았다. 어미 보호 없이 '마실'에 나선 남은 두 마리 오리 새끼들을 만난 것이다. 아직 어미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일텐데, 벌써 독립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잠시뿐, 전혀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열심히 물밑을 훑던 두 마리 오리는 무언가에 놀랐는지 후다닥 날아가 버렸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날아간 곳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성체로 커서 독립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대견스러웠다.

베르네천에서는 물고기와 야생오리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는 무수한 꽃들과 들풀을 만날 수 있다.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또 다른 즐거움은 야생화와 들풀과의 만남이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하나의 모양과 형태, 그리고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에 눈길이 갔다.

게다가 그것들은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다. 종려방동사니, 익모초, 댑싸리, 방아깨비, 절굿대, 원추리, 쓰바귀, 자주 개자리, 골담초, 강아지풀, 붉은 토끼풀, 억새풀, 쇠뜨기, 금계국 등. 얼마 전에는 하천 모퉁이에 지자체에서 코스모스 씨앗을 수천 아니 수만 개를 뿌려놓았는데, 벌써부터 가을의 찬란한 스펙터클을 기대하게 만든다.

베르네천은 전에 '오염된 하천'으로 불렸던 곳이나, '생태 하천'으로 거듭난 곳이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을 산책하며 살아있는 생태를 즐기지만 이곳은 인근에 있는 부천식물원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볼거리가 풍부할 뿐 아니라 훨씬 좋은 환경을 갖춘 그곳보다, 필자가 자주 찾는 곳은 특별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베르네천이다. 이곳은 굴곡진 사연을 갖고 있기에 더욱 애착이 가는지 모른다.

베르네 생태하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어떻게 생태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물론 여기 식물들은 거의가 다른 데서 옮겨온 것이거나 파종된 것이며 공원 직원의 친절한 관리를 받은 것들이지만, 그들의 역할은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식물들은 날씨와 온도 등 외부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신의 종을 선택할 수도 없다. 그것은 모두 외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최고의 상상력을 지닌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디자인된 것들이다.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을 지으셨고 보존하시며 돌보신다고 기술한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도 동네 개천의 식물뿐 아니라 남태평양 무인도에 핀 각종 열대 식물까지, 지구상 모든 식물들이 그분의 창조력과 솜씨로 지어졌다는 것을 상상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보존하시고 돌보시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지레짐작조차 할 수 없다. 자연의 오묘함 속에 신성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런 피조계가 기로에 처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 지구과학자 E. G. 니스벳(E. G. Nisbet)의 지적처럼 "지구는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 상처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명백하다"고 단언한다. 삼림 파괴, 물 부족과 오염, 땅의 황폐화, 늘어나는 쓰레기, 에너지 소비 증가, 산성비, 지구의 기후변화, 자연의 남획과 기아 등은 인류와 동식물의 안녕을 위협할 수준까지 그 심각성이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쩌다 이같은 혼돈에 빠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연을 망가뜨린 이유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욥 38:7)"고 했는데, 잊어버린 기쁨과 환희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 질문들을 품게 된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은 자연의 존재와 아름다움을 신의 계시로 여기고 과거에는 전무하였던 초유의 그림 형태, 즉 '풍경화'를 창안해 냈다. 네덜란드 미술가들 중 유독 풍경화가 많은 것은 그들이 자연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속에서 찾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 매일 접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세상을 새롭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술가들의 역할 중 하나다.

존 매쿼리(John Macquarrie)는 예술을 '계시와 같은 어떤 것'으로 보며 "드러난 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으나 우리의 단조로운 일상 경험 속에 묻혀버렸다. 예술가의 감성은 이것을 조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물들을 처음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고 한다. 좋은 성품을 형성하려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체화시키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잠깐 짬을 내서라도, 오늘은 들꽃과 들풀을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눈빛들을 자주 교환하다 보면 우리 속에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자연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창조세계를 하나님 은혜의 구현, 곧 땅과 하늘, 언덕과 골짜기, 나무와 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감각을 주셔서 들풀과 들꽃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까?

복잡하고 경이로운 체계로 이루어진 창조세계의 신비를 낱낱이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것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망초와 붉은 토끼풀로 뒤덮인 베르네천 생태공원. ⓒ서성록 교수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통큰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anc
ANC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 Upper Elementary Dept
(교육부 4-6학년 전도사)
선랜드에 위치한 ANC 온누리교회에서는 4, 5, 6학년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실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담당 사역자를 구합니다.
(ANC KidzWinC is seeking to hire a part-time or Full time Pastor for Upper Elementary Dept [4th-6th Grade])
■ 기본사례: $25 ~ $30 / hourly
■ 관심이있거나 문의사항있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admin@anconnuri.com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www.anconnuri.com

로잔대회 마지막 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다뤄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다수세계 선교운동 소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마지막 날인 28일은 '땅끝까지 왕 되신 예수를 전하자'라는 주제로 오전 성경강해와 주제강의가 진행됐다.

아마존 지역에서 전도와 리더십 개발 사역을 하는 브라질 장로교 소속 호날두 리도리오(Ronaldo Lidorio) 목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행 1:1~8, 28:23~31)이라는 주제의 말씀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네 가지 고려 사항을 제안했다.

리도리오 목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읽다 보면 네 가지 진술이 분명해진다"며 "첫째 복음은 반대에 직면할 것이고, 둘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며, 셋째 복음은 용기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포되고, 넷째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확신과 메시지 아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네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며 "첫째,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결론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연구, 분석, 전략을 사용하시며 우리는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둘째,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인도와 힘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를 용기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으며,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놀라운 도전에 동참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도리오 목사는 "셋째, 비판하지 않고 더 많은 파트너십을 통해 통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경쟁은 없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 함께 전략을 개발하는 것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마음속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넷째, 복음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말과 삶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또 세상에 관련되고 필요한 모든 일에 참여하되, 선교의 핵심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주제강의는 로잔 동아시아 지역 이사 데이비드 로(David Ro) 목사의 인도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의 역동적인 선교 운동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선교를 다뤘다. 새들백교회 설립자이자 대위임령을 위한 여러 단체를 설립한 릭 워런(Rick Warren) 목사는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지상명령 완수는 조직, 교회, 교파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 세대에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목표에 대한 네트워크와 공동의 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신자, 교회, 단체, 교단이 협력하여 네 가지의 구체적인 'B' 목표, 곧 '성경(Bibles)', '신자(Believers)', '그리스도의 몸(Bodies of Christ)', '돌파하는 기도(Breakthrough Prayer)'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릭 워런 목사는 먼저 "우리는 성경 번역과 참여에 속도를 내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구상의 모든 불신자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신자들이 간증을 나누도록 준비시킬 것"을 당부했다.



개회예배 ⓒ총회

또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지역교회를 접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하고, 향후 10년 안에 지구상의 모든 불신자가 적어도 한 번은 이름을 부르며 기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다양성 가운데 연합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전파, 하나님 말씀의 삶의 적용과 실천, 가정 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고든콘웰신학교 부교수이자 GCI(Gordon-Conwell Institute) 학장 조은아 박사는 '아시아 선교운동의 회복과 연합'에 대해 전했다. 조 박사는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아시아 교회의 기도하는 회복력과 성령께서 창조하신 일치를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의 모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몸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 교회는 (우리 몸의) '인대'와 같이 전체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결과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 박사는 "아시아 교회가 세계 기독교에 기여하는 것은 수적인 힘이나 선교적 노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아시아 교회의 가장 큰 공헌은 다양하고, 때로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번성할 수 있는 능력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는 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교회에서 공통점으로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역경을 견뎌낸 것"이라며 "이러한 도전을 견뎌낸 아시아 교회는 글로벌 교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복음의 힘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 교회는 성령만이 창조할 수 있는 일치를 굳게 붙잡고, 지극히 겸손하고 온화하게 이 일에 접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덧붙였다.

SIL 인터내셔널 CEO 미셸 켄모그네(Michel Kenmogne) 박사는 '아프리카의 성경 번역을 위한 노력'에서 "아프리카는 21세기 세계선교 영역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경번역 분야는 분명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며 "성경번역은 점차 성장하는 아프리카 교회 사역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켄모그네 박사는 "성경 번역의 생산성이 토착적인 신학적 형성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반에서 증거가 있는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의 시인이자 신학자이며 가나 독립의 선구자인 에브라임 아무의 예언의 말씀, 곧 '해외 선교부는 영구적인 기관이 아니며 사라질 것이나 교회는 남을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아프리카 교회,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경의 위대한 진리에 마음을 쏟는 독실한 남녀를 배출하여 성경을 더욱 풍성한 책으로 만드는 교회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가 성취되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1세기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전역에 걸쳐 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COMIBAM(코미밤) 필드 디렉터이자 비전(Vision) 5:9의 회장 알란 마타모로스(Allan Matamoros)는 '라틴 선교운동의 잠재력과 도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대다수의 세계가 복음을 전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타모로스 회장은 "20세기 초 에든버러 선교대회에서 여러 선교단체가 국가의 공식 종교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를 선교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몇 년 후 1916년 파나마 대회에서는 라틴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며 "선교대회 이후 한 세기가 조금 더 지난 지금, 라틴아메리카복음주의연맹(AELATINA)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복음주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약 1억 6천만 명의 복음주의자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마타모로스 회장은 내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격동의 1980년대인 1987년 COMIBA(코미밤)이 출범해, 목회자, 지역 교회, 훈련 센터, 선교 기관을 섬기는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되었다며 "현재 미주 지역과 이베리아 반도의 25개국에서 활동하고, 약 3만 명의 이베로아메리카인이 다문화 선교사가 되어 전 세계 약 200개 국가와 수십 개의 미전도 종족 그룹에서 사역하고 있다. 또 성경번역이나 인도주의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타모로스 회장은 미래 비전으로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교회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나기를 소망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소망한다"며 "특히 도시 환경, 디아스포라 사람들, 모든 종교적 장애물,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1,850개 단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더 많은 선교학적 성찰을 원하며, 2025년 4월 코미밤 대회를 기점으로 여러 선교학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추수의 주님께 열방과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의 횃불을 들 새로운 세대의 젊은 리더들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baeksong.kr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미주성결교회 LA 백송교회

2024 영성축제



15th Victoria Lee Praise Concert

이순희 찬양콘서트

10/12/2024 토 오후 3:00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수양관 관장
기독교 생활영성연구원 원장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서울신학대학원 Th.D 선교학
서울신학대학원 Th.m 선교학
서울신학대학교 / 신학대학원 M.div

도서 <복음과 영적전쟁>,<복음과 내적치유>,
<복음과 인생설계>,<복음과 가족치유>
<영혼을 살리는 찬양>1,2,3,4,5,6 저자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1st 미주 가족치유부흥회 Family Healing Revival

10/13 주일 오후 - 17 목 오전 오전 10:30 | 오후 7:30

19차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Revival Conference

10/17 목 오후- 22 화 오전 10:30 | 오후 7:30

가족치유부흥회는
가정의 문제를 영적으로 심도 있게 진단하고, 죄와 상처로 인한 **가족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모든 문제를 초월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컨퍼런스는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회복의 예배**로 깊은 영성훈련에 돌입하는 집회 입니다.



LA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불 같은 성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미주성결교회 LA 백송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 Tel. 562-606-2345 , 213-249-4790